

불국토(佛國土) 사상에 따른 다불전(多佛殿) 사찰의 조영(造營) 개념 연구

- 불국사, 법주사, 부석사의 불전 배치를 중심으로 -

양 상 현

(순천향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주제어 : 사찰, 배치, 불국토, 불국사, 법주사, 부석사

1. 머리말

1.1 개요

다불전(多佛殿) 사찰은 두 개 이상의 불전(佛殿)을 갖는 사찰이다. 일반적인 사찰에서 각 전각의 배치는, 중첩된 산문에 이어 중심을 이루는 불전이 놓이고, 그 뒤에 보살전 영역이 펼쳐지는 통불교 사찰의 전형적 가람 형태를 취한다.¹⁾ 한편 불전이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타 불전에 대하여 특별한 영역을 형성하거나 독립된 축을 지니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며, 그 규모에 있어서도 서로 각축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봉안되는 불상의 성격에 따라 각 불전이 확연히 구별되는 신앙 체계를 갖는 까닭이다. 종파간의 차이가 엄연하던 고려 이전의 불교에 있어 각 종파에서는 소의경전(所依經典)에 따라 존숭(尊崇)하는 부처를 달리 하였으며, 그에 따라 불전이 상징하는 불국토(佛國土)도 상이하였다.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각 종파의 차이는 희석, 통합되는 과정을 밟았지만, 이전 시대에 형성되어 있던 불전 배치의 근간은 유지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본 연구는 다불전 사찰에서 각 불전의 배치에 작용한 불교적 교리에 따른 조영 개념을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각 불전의 배치에 있어 고려된

계획의 원리는 지형적 요인에 의한 것과 교리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산간에 존재하여 배치에 있어 선택의 폭이 크지 않았던 대개의 다불전 사찰에서 지세의 흐름, 터의 규모와 형태, 진입의 방향 등은 사찰의 배치를 결정하는 지형적 요인이다.²⁾ 다불전 사찰의 배치에 있어 다른 하나의 계획 원리인 교리적 요인은 지형적 요건 하에서 각 불전의 배치 원칙으로 작용하였다. 이 때 각 불전이 배치되는 방식은 불가(佛家)의 사유체계에서 비롯된 특정한 개념을 지닐 것인바, 이를 추적함으로써 해당 사찰에 구현된 불교적 조영(造營) 원리에 접근하고자 한다.

교리 체계에 따라 그 상관관계를 해석함에 있어, 각 종파가 가지는 신앙체계 전반의 성격을 다불전 사찰의 배치에 대입하여 해석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적용의 모호함과 더불어, 규범에서 이탈된 사례의 산재로 말미암아 분석에 있어 상당한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찰의 각 불전이 신앙 체계에 따라 서로 다른 불국토(佛國土)를 의미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불국토의 결합 및 위치의 상관관계에 의하여 다불전 사찰의 배치를 해석하고자 한다.

1.2 불전의 결합 유형

1) 김봉렬, 조선시대 사찰건축의 전각구성배치 형식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1989, pp.135-140, 참고, 조선시대 사찰배치의 서사구조,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pp.36-46

2) 전통 사찰이 보여주는 지형과의 빼어난 조화에 대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주목하였으며, 개별 사찰에 대한 이러한 연구는 충분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

본 연구는 현존하거나 확인된 자료를 통하여 두 개 이상의 불전이 존재한 사찰의 배치 유형을 분류하고, 이 중 교리적 요인이 상대적으로 강력하게 부각된 대표적인 사찰을 대상으로 해석을 진행하겠다.

사찰의 배치에 있어 신앙체계에 주목한 김봉렬은 그 배치 유형을 영역과 축의 두 가지 요소에 의해 구분하여, 영역에 의한 분류로 단영역, 2영역, 3영역, 다영역형을 나누고 구성축에 의한 분류로 중축형, 교축형, 병렬형을 나누었다.³⁾

위의 영역에 의한 분류와 축에 의한 분류를 통합하면, 각 불전이 독립된 영역을 가지며 횡으로 놓이는 병렬형(並列型), 불전의 좌향(坐向)에 의해 형성되는 축이 서로 직교하는 교축형(交軸型), 두 개의 불전이 하나의 축 상에서 연이어 전개되는 중첩형(重疊型)의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될 수 있다.

불국사, 봉정사, 실상사, 용문사(예천), 동화사 등은 둘 이상의 불전 영역이 병렬 배치되거나, 또는 별도의 영역으로 분리되어 있는 병렬형 사찰에 속한다. 불국사는 대웅전, 극락전, 비로전이 각각 별도의 영역으로 구분된다. 봉정사는 대웅전과 극락전이, 예천 용문사는 대웅전과 대광명전이 평행하게 병렬 배치되고 있다.

불전의 축이 직교하는 교축형 사찰에는 금산사, 화엄사, 법주사, 보림사 등이 있다. 이들 사찰에 모두 비로자나불을 모시는 전각이 존재함이 주목된다. 각 전각이 상징하는 불국토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교하는 축을 사용한다.⁴⁾

중첩형 사찰은 두 개 이상의 불전이 선형적, 순차적으로 중첩된 구성을 보인다. 마곡사, 부석사, 쌍봉사, 장곡사 등이 이 유형에 속한다. 목탑식의 불전(대웅전)을 갖는 쌍봉사를 제외하면, 다른 세 개의 사찰은 모두 가파른 경사지에 입지한다. 이러한 지형적 특성에 따라 전, 후의 불전이 중첩되어 놓이면서도 뒤의 불전이 상대적으로 높게 위치하므로 서로 독립된 조망 및 외관을 형성한다. 전, 후 전각 간의 위계 차이는 사찰에 따라 달리 나타

3) 김봉렬, 조선시대 사찰건축의 전각구성과 배치 형식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1989. pp.60-70

4) 화엄사의 구성에는 지형적인 요인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상대적으로 국(局)의 폭이 좁은 산간에 있어 두 개의 불전을 직교하여 배치하는 것이 병렬적 배치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난다.

불전을 배치함에 있어 사찰마다 각각의 유형을 선택하도록 한 결정적 이유는 지형적 요인이었다. 사찰의 입지가 갖는 물리적 특성은 강력한 전제 조건으로 작용하여 불전 배치의 기본 틀을 이루었다. 이러한 지형적 조건 하에서 사찰의 조영 주체들은 자신들이 지닌 교리적 인식을 반영할 수 있는 불전의 배치를 모색하였다. 많은 경우 그 의도는 여타의 요인에 가려 명확하게 부각되지 못하였지만, 일부의 사찰에서는 신앙 체계에 따른 불전의 배치 개념이 매우 선명하게 실현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세 가지 유형 분류에 따라 각각 교리에 의한 배치 개념이 명료하게 드러나 있는 대표적인 사찰을 들어 분석을 진행하겠다. 병렬형의 구성을 보이는 불국사, 교축형의 법주사, 중첩형에 속하는 부석사가 그 사례들이다.

2. 불국토의 상관관계에 따른 다불전 사찰의 해석

2.1 불국토의 총화(總和) : 불국사(佛國寺)⁵⁾

(1) 조영의 배경과 입지 지형 분석

불국사고금역대제현창기(佛國寺古今歷代諸賢勸記)⁶⁾에 의하면 법흥왕(法興王) 15년(528)에 창건되었고 하나 신빙성이 적다. 삼국유사의 기록은 김대성이 불국사와 석불사를 지어 신림(神琳)과 표훈(表訓) 두 대사로 하여금 주석(住錫)하게 하였으며, 혜공왕 10년(774)에 그가 죽자 나라에서 이어 완공을 보았다고 전한다.⁷⁾ 불국사에 존재하는 유물이나 기록을 종합하면 현존하는 세 개의 불전을 포함하여 대가람의 형태가 갖추어진 것은 신라 혜공왕 기를 즈음한 일로서 김대성의 종합적인 계획

5) 불국사의 배치를 신앙 체계에 따라 해석한 연구로는 (1)한국불교연구원, 불국사, 일지사, 1974 (2)김동현 외, 불국사, 대원사, 1992 (3)신영훈, 불국사 그 오묘한 전개, 월간조선 1997.5 (4)김봉렬, 한국건축의 재발견 1 시대를 담는 그릇, 이상건축, 1999 등이 있다. 여기에서는 기존의 연구가 밝힌 내용은 최대한 간략하게 정리하고, 불국토의 결합 방식과 관련하여 새로이 주목되는 사실과 그 교리 사상적 배경을 중심으로 설명하겠다.

6) 佛國寺古今歷代諸賢勸記, 1740, 영조16년의 기록. 문화재관리국, 불국사 복원공사보고서, 1976. pp.271-285

7) 三國遺事. 大城孝二世父母條. 고익진은 불국사에 신림과 표훈이 차례로 주석하고 석불사에 유가대덕이 주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익진, 한국고대불교사상사, 동국대학교, 1989. p.3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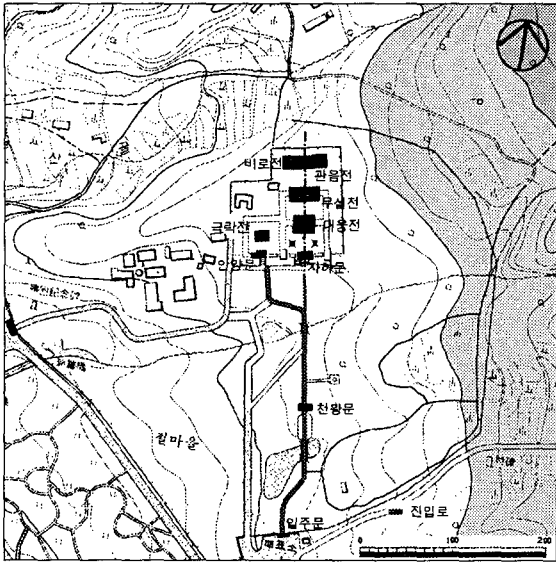


그림 1. 불국사 지형도

아래 전체적인 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에서 유사가 언급하고 있는 신림과 표훈은 의상계 화엄의 고승으로 전자는 의상문하(義湘門下) 십대덕(十大德)의 1인이고 후자 역시 십대덕 중 상원(相元)의 제자로서 뒤에 ‘부석적손(浮石嫡孫)’으로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다.⁸⁾ 김대성은 또한 사찰의 창건에 앞서 황복사의 표훈을 찾아가 화엄의 교리를 배우기도 하였으니⁹⁾ 정토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에 있었던 의상의 화엄인식이 불국사의 조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사찰이 입지한 지형은 서쪽을 향하여 완만하게 흐르는 경사지로, 북쪽의 지세가 남쪽보다 약간 높으며, 남북, 동서로 모두 여유 있게 대지를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지형 조건으로 말미암아 각 불전이 상징하는 불국토를 그 상관관계에 부합하도록 배치하는 일이 가능하였다.

(2) 불전 배치의 해석

불국사의 불전 배치를 살펴보면, 대웅전을 중심으로 극락전이 병렬하여 놓이며 그 북쪽으로 비로전이 위치한다. 먼저 대웅전 영역을 살펴보자. 불전 마당에 놓인 다보탑과 석가탑은 각각 다보여래와 석가모니를 표현한다. 법화경(法華經)을 설(說)하는 석가모니와 그를 증빙하기 위해 출현한 다보여래가 대웅전 앞마당에 두 탑으로 솟아 있는 것

이니 이 장소는 법화경에 그려진 ‘불국토로 화(化)한 사바세계’를 상징하게 된다.¹⁰⁾ 또한 석가탑의 주위 팔방에 원형의 연화대좌(蓮華臺座)가 있어, 법화경에 서술된 팔방의 부처가 강림한 자리를 표현하고 있다.¹¹⁾ 대웅전으로 들어서는 문이 석가모니의 ‘자색금신(紫色金身)’을 뜻하는 자하문(紫霞門)이라는 것과 그 서쪽에 수미산 세계를 표방, 수미범종각(須彌梵鐘閣)으로 불린 범영루(泛影樓)가 있는 점 등도 이러한 불국토 상징을 보강한다.

다음으로 대웅전 영역의 서편에는 극락전 일원이 있다.¹²⁾ 아미타불의 불국토인 서방 극락정토(安養)를 상징하므로, 석가의 사바세계를 의미하는 대웅전에 대하여 정확히 서쪽에 위치시킨 것이다. 극락의 위치에 대한 경전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그때 부처(석가)가 사리불에게 말하였다. 여기서부터 서쪽으로 십만 억 불국토를 지나면 한 세계가 있으니 극락이라 하고 거기에 부처가 있어 아미타불이라 하며 현재에도 법을 설하고 있느니라.¹³⁾

뒤의 부석사에 대한 설명에서 상술하겠지만, ‘서방(西方)’의 정토를 지향한 의상의 엄격했던 방위 관념이 불전의 배치에 그대로 적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웅전 앞에 두 개의 탑을 둔 반면, 극락전 마당에는 탑이 없다. 또한 대웅전 내에 주불인 석가여래에 더하여 미륵, 갈라 두 보살을 협시(挾侍)로 세우고 있음에 비하여 극락전에 안치된 아미타불에는 아무런 협시보살도 세우지 않았다. 불전에 협시보살을 두지 않으며 마당에 탑을 세우지

10) 한국불교연구원, 불국사, 일지사, 1974. pp.41-49

11) ‘석가가 설법을 할 때 하늘로부터 무수한 보배꽃들이 비처럼 내리려 그 보배대에 공양하고, 또 석가모니가 팔방의 국토를 모두 청정하게 하니 사방의 모든 부처가 강림하여 팔방에 앉는다.’ (한글대장경. 妙法蓮華經. 제4권 見寶塔品. 전자불전연구소. 한국불교연구원, 앞의 책. p.57)

12) 대웅전과 극락전 영역이 뜻하는 불국토에 대하여 사적기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사내에 두 개의 탑을 지었는데 그 중 하나인 무영(無影, 석가) 탑을 지은 것은 석가여래가 상주하여 설법하던 장소(釋迦如來常住說法之寶所)임을 나타내는 것이며, 다른 하나인 다보탑을 세운 것은 다보여래가 이를 증명한 곳임을 뜻한다(多寶如來常住證明之剎幢). (중략) 이것(대웅전 영역)이 즉 석가가 영산에서 묘법을 전하던 곳과 다르지 않으며(則宛同昔日東會靈山終談妙法之儀軌), (극락전 영역)은 또한 서방무량수국(극락정토)를 닮은 것(亦似西方無量壽國分序九品之道場)이다.’ (문화재관리국, 불국사 복원공사보고서, 1976. p.263)

13) 爾時佛告 長老舍利弗 從是西方 過十萬億佛土有世界 名曰極樂 其土有佛 號阿彌陀 今現在說法. <阿彌陀經>. 坪井俊映, 淨土三部經概說, 운주사, 1992. p.529

8) 고익진, 앞의 책. pp.368-371

9) 위의 책. p.3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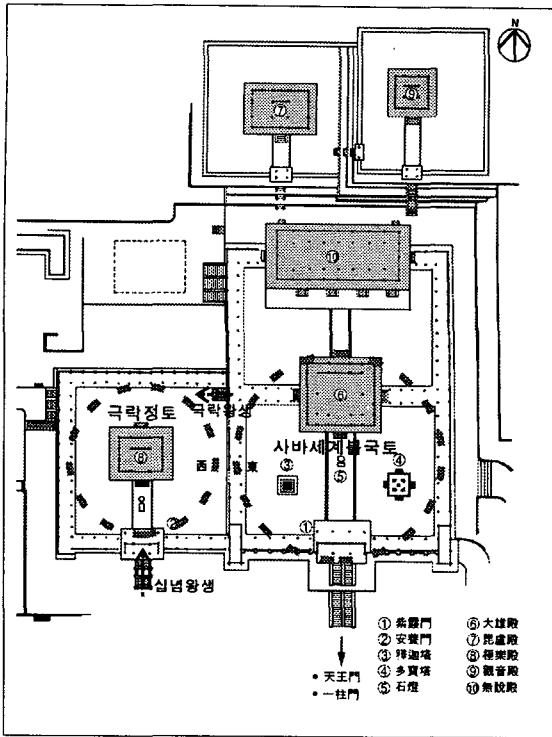


그림 2. 불국사 배치 개념도

않는 구성은 부석사 무량수전과 같은 수법으로서, 의상과 그 문하의 정토사상(淨土思想)을 그대로 실현하고 있다. 극락전 앞에 석등 하나를 세우는 것까지 부석사와 동일하다. 부석사 동쪽 구릉에 놓여 있는 원융국사비(圓融國師碑)는 이들에게 공유된 불전 건축 개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러 주고 있다.

이 절(부석사)은 의상이 서방의 화엄에 유학하여 지엄(智嚴)의 가르침을 받고 돌아와 창건하였다. 불전 내부에는 오로지 아미타불상 만을 모시며 보처보살이나 영탑을 세우지 아니하였다. 제자가 이를 물으니 의상이 답하였다. 스승 지엄이 말하기를 ‘일승 아미타불은 열반에 들지 않으므로 서방의 정토로 무생명의 몸을 삼느니라. (중략) (아미타)부처는 열반에 들지 않아 (보처와) 영탑을 세우지 않는 것이 일승의 깊은 뜻이니라.’고 하였다. 이러한 가르침을 받아 의상이 그 제자에게 전하여 (원융)국사에게 이르렀다.¹⁴⁾ <부석사 원융국사비>

14) 是寺者 義湘師遊方西華 傳炷智嚴後 還而所創也, 像殿內唯造阿彌陀佛像 無補處亦不立影塔 弟子問之 相師曰 師智嚴云 一乘阿彌陀無入涅槃 以十方淨土爲體無生滅相 故華嚴經入法界品云 或見阿彌陀觀世音菩薩灌頂授記者 充諸法界補處補闕也 佛不涅槃無有關時故 □□補處不立影塔 此一乘深旨也 嚴師以此傳相師 相師傳法嗣 暨于國師 <浮石寺 圓融國師碑>. (고려 문종 8년 (1054). 문화재관리국, 영주부석사보수정화준공보고서, 문화재관리국, 1980. pp.113-115)

화엄사상과 함께 아미타불의 극락정토를 염원하였던 의상의 인식은 그 문도들에게 이어졌으며, 이는 탑과 협시보살을 두지 않는 불전 건축 개념으로 구체화되었다. 의상에 이어 제자 능인이 창건한 봉정사(鳳停寺) 역시 이러한 원칙에 따라 대웅전의 서쪽에 극락전이 배치되어 있다. 현재 봉정사 극락전 앞에는 3층 석탑이 놓여 있으나, 고려시대의 석탑 형식을 보여주는바 의상, 능인의 창건기에 이 극락전 앞마당은 탑 없이 비워져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부석사와 불국사를 이어 봉정사에서도 동일한 의상 계열의 가람 배치 개념이 확인되는 것이다.¹⁵⁾

불국사 극락전에 구현된 정토사상과 관련하여 살펴볼 몇 개의 석조 조형물이 존재한다. 동쪽의 대웅전으로부터 극락전으로 연결되는 계단은 16단의 계단이 세 부분으로 구획되어있다. 이 때 세 부분의 구획은 상품, 중품, 하품으로 구분되는 극락왕생의 삼배(三輩)를 뜻하고, 16단은 극락왕생을 위한 수행법의 하나인 관무량수경의 16관법을 상징한다. 모두 합하면 계단의 총 수는 48개가 되어 법장비구의 48대원(四十八大願)을 의미하게 된다.¹⁶⁾ 즉, 아미타불이 전생에 법장비구(法藏比丘)로 있을 때 48개의 원을 세우고 정진하여 극락세계를 이룬 바, 이 계단은 사바세계에서 극락으로 가기 위한 48개의 ‘통과과정’을 상징하는 것이다. 당시의 불교계가 48대원과 삼배구품설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 계단을 만들면서 그 수자에 맞추어 계단을 구성하였을 개연성을 더욱 짚게 한다.¹⁷⁾

15) 임란 이전의 사찰의 면모에 대하여 사기(天燈山鳳停寺記)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좌우의 법당에서 부처를 모시고 가르침을 전하는 일이 이어져, 누와 각의 처마가 날아갈 듯하고, 행랑과 실이 모두 구비되어 있으니, 두 대사(의상, 능인)의 자취가 이어진 까닭이며 이후의 조사들에게도 계승되고 있어 이미 거찰의 면모를 갖추었다.’ (大其法宇而崇奉佛事 左右高堂而教尊釋子 樓之閣之甍簷翬飛 廂馮室焉而制度極備 則前乎兩大師必有祖述之跡沒乎 五大師亦有繼述之事 而今其所餘者 但兀然一古巨剎而已 卽中凡具)

16) 장충식, 신라석탑연구, 일지사, 1987. p.150

17) 당시 불교계의 정황은 이러한 해석을 보완한다. 통일기의 신라에서는 48대원과 관련한 연구가 활발하여 법위(法位)가 그의 저술 무량수경소(無量壽經義疏)에서 48인의 하나하나에 그 제명(顯名)을 붙여 분류하였고, 뒤를 이어 의상의 십대덕 중 한사람인 의적(義寂)도 48인의 해석에 동참하고 있다. (蔡印幻, 新羅時代의 淨土敎學, 韓國淨土思想研究, 東國大學校出版部, 1985. p.99)



그림 3. 극락전 연결 계단



그림 4. 불국사 연화교

극락전 영역에 이르는 또 다른 통로는 대석단 아래에서 극락전 영역으로 오르는 계단으로, 연화교(蓮華橋)와 칠보교(七寶橋)라는 명칭이 차례로 붙여졌다. 위의 칠보교는 일곱 단으로 구성되어 그 이름처럼 극락의 칠보 연못을 상징하며, 10개의 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화교는 아미타불을 염불하여 극락에 들어간다는 10념왕생(十念往生)을 의미한다.¹⁸⁾ 연화교와 관련된 경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이 지극한 마음으로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심념을 구족하여 아미타불을 칭하면 (중략) 생사의 죄가 사라지고 수명이 다하면 태양과 같은 금색 연화가 그 앞에 있는 것을 보고 한 생각 사이에 극락세계에 왕생하느니라.¹⁹⁾ <관무량수경>

십념²⁰⁾을 다하여 아미타불을 부르면 연꽃을 보게 되고 곧 이어 극락에 왕생하게 된다는 관무량수경의 내용은 연화교에 그대로 실현되어 있다. 열 개의 연화교 디딤돌 바닥에는 경전의 설명 그

대로 연꽃 문양을 새겨 오르는 이로 하여금 피어 오른 연화(蓮華)를 보게 하였다. 극락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건축적 연출이다.²¹⁾ 불국사의 연화교와 48계단은 불국사의 조영 주체들이 가진 대승적(大乘的) 정도관의 소산으로, 신라의 민중들에게 왕생의 희망을 제시한 건축적 방편이었다.

불국사의 세 번째 불전인 비로전(毘盧殿) 영역은 비로자나불이 주재하는 연화장 화엄세계를 의미한다. 비로전은 대웅전과 극락전의 북편에 놓여 있다. 연화장세계와 극락정토가 갖는 위치 관계에 대한 설명은 범주사에 대한 해석에서 상술하겠다.

불국사의 사적기(新羅東國土山華嚴佛國寺事蹟)에 병기된 최치원의 시는 다음과 같다.

동해 동산(토함산)에 아름다운 절이 있어 그 이름은 화엄불국이라.

주인종근이 친히 (절을)세우니 절 이름의 네 글자는 그 뜻이 매우 깊구나.

화엄에 머무르며 연화장을 바라보고 불국토에 거하여 마음은 안양에 이르네.

마산의 독장을 다스리니 마침내 고해의 파도가 사라지도다.²²⁾

또한 중생의 왕생에 관련하여 무량수경의 삼배와 관무량수경의 구품이 서로 어떤 관계인가를 두고 당대의 학승들 사이에서 해석이 분분하였다. 범위, 경흥, 의적, 원효 등이 각기 이에 대한 해석을 전개하였다. (安啓賢, 韓國佛敎思想史研究, 東國大學校 出版部, 1983. pp.56-58)

18) 최범구, 佛國土, 보림사, 1985. p.129 김봉렬, 앞의 책. p.81에서 재인용

19) 如是至心令聲不絕 具足十念稱南無阿彌陀佛 稱佛名故 於念念中除八十億劫生死之罪 命終之時 見金蓮華 猶如日輪 住其人前 如一念項 即得往生 極樂世界. <觀無量壽經, 下品下生>. 坪井俊映, 앞의 책. p.480

20) '十念'이 열 번에 걸친 염불인가 아니면 지극하고 정연한 마음의 상태인가에 대한 문제는 당대의 논란이 되었다. 원효 등은 전자에 기울고 있다.

21) 연화교에 반영되어 있는 십념설 역시 중국이나 신라의 제가(諸家)들 사이에서 자주 논의되어 오던 바다. 중국의 섭론사(攝論師)들이 미타정토에는 오로지 초지(初地)이상의 보살이라야 왕생할 수 있는 곳기에 미타정토 신앙을 범부에게 강조하는 것은 부질없다고 공박한 것에 대하여, 화엄종의 지엄(智嚴)과 범장(法藏), 그리고 신라의 의상(義湘) 등은 어떤 범부라도 선근(善根)만 쌓으면 정도에 왕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상은 신라에 이어져, 통일과정에서 오랜 전란에 시달린 민중을 위로하고, 심지어 오역죄(五逆罪)를 지은 자라도 임종(臨終) 전에 십념염불을 하기만하면 왕생 정도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정도교학이 전개됨으로써 신라인들에게 희망을 불어 넣었다. (蔡印幻, 앞의 책. pp.106-116)

위의 시에서 설명되고 있는 것과 같이 불국사에는 화엄의 연화장세계와 아울러 대웅전과 두 개의 탑으로 구현된 사바세계 불국토, 그리고 극락전과 안양루로 이루어진 극락정토가 종합되어 있다. 각 불전의 배치에 있어 사바세계 불국토와 극락정토가 지니는 방위상의 상관관계를 반영하여 두 불전은 동서로 병렬 배치되었으며 그 안쪽으로 연화장세계가 중첩되었다. 화엄을 종지(宗志)로 하되 정토계의 아미타 신앙과 범화경의 교리를 받아들인 의상 계열의 사찰 배치 개념은 김대성과 신림, 표훈 등의 조영 주체에게 공유되어 사바세계 불국토와 극락정토, 그리고 연화장세계의 총화(總和)로 실현되었다.²³⁾

2.2 왕생사상(往生思想)의 전개 : 법주사(法住寺)

(1) 조영의 배경과 입지 지형 분석

신라 진흥왕 14년(553), 의신(義信)이 창건하였다고 전하나 확인되지 않는다.²⁴⁾ 법주사의 실질적 창건은 진표(眞表)가 속리산에 터를 정하고 그의 제자 영심(永深)이 스승의 점지에 따라 본격적으로 사찰을 조영한 일에서 비롯한다.²⁵⁾ 초기 사찰 배치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전하지 않는다.

22) 東海東山有佳寺 華嚴佛國爲名字 主人宗哀親修置 標題四語有深義 華嚴寓目瞻蓮藏 佛國駐心係安養 欲使魔山平毒嶽 終令苦海無驚浪 <阿彌陀佛像讚>. 불국사사적(新羅東國土舍山華嚴佛國寺事蹟)에 첨부된 최치원의讚. (문화재관리국, 불국사 복원공사보고서, 1976. p.264)

23) 이 외에도, 불전보다 위계가 낮은 보살전에 대하여 조영 주체들이 가졌던 공간적 인식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가 전한다. 지금은 남아 있지 않으나 불국사고금역대제현창기가 언급하고 있는 낙가교(洛迦橋)는 관음전 앞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관음전과 낙가교 영역은 관음이 주처하고 있는 보타락가(Potalaka)산을 의미한다. 역시 의상이 창건한 낙산사가 관음도량으로서 보타락가산을 뜻하는 것에 상응한다. 또한 지장전 앞에 있었던 육도교(六道橋)에 대하여 사적기는 육도유회에 빠져있는 중생들이 왕래하며 법을 청해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라 전하고 있다(六道等十三橋 爲四聖六凡聽法往來之階差). (문화재관리국, 앞의 책, p.263)

24) 이곳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치열한 싸움을 벌이던 삼국 쟁패의 요충지였음을 감안하면, 신라의 의신이 대규모의 사찰을 건립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기록을 인정한다하더라도, 다만 소규모의 암자 정도가 가능하였을 것이다. (최완수, 명찰순례 1권, 대원사, 1994. p.221)

25) 三國遺事 제4권 關東樞岳鉢淵藏石記는 영심이 스승 진표의 가르침에 따라 속리산에 길상사(吉祥寺)를 세웠다고 전하고 있다. 유사가 언급하고 있는 길상사는 정황으로 보아 법주사임이 분명하다. 최완수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연구자들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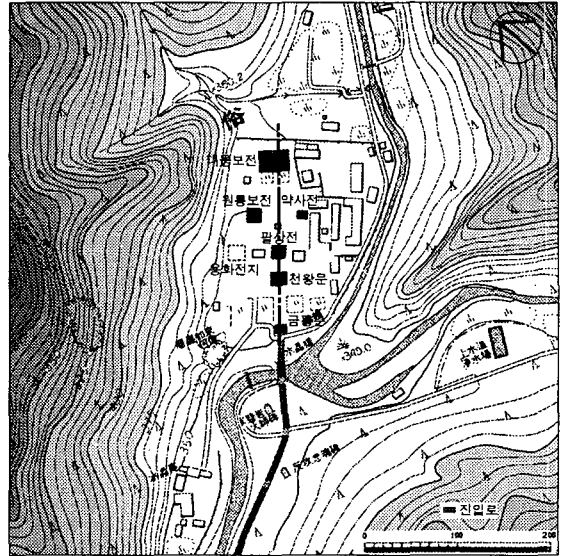


그림 5. 법주사 지형도

유물과 자료로 보아 오늘날 확인되는 산호전과 팔상전, 대웅보전을 포함하는 법주사 가람 배치의 골격은 고려 전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²⁶⁾

법주사가 자리하는 속리산은 불국토 신앙과 깊게 관련된다. 이 산은 예로부터 광명산(光明山), 미지산(彌智山), 자하산(紫霞山)등으로 불리었으며,²⁷⁾ 최고봉인 천황봉(天皇峰)을 중심으로 비로봉(毘盧峰), 관음봉(觀音峰) 길상봉(吉祥峰), 문수봉(文殊峰) 등 여덟 개의 봉우리가 있다. 그 명칭으로 보아 법주사 자체가 불국토로 둘러 쌓여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²⁸⁾ 지형도를 보면 법주사는 남서쪽으로 열린 계곡을 따라 위치하며 주축은 남서-북동으로 형성된다. 서쪽으로는 급경사의 산지가 이어지며 동쪽으로는 계곡이 흐르고 있으므로 주축상의 북측에 본전을 두어 남서향을 취하게 하고 직교하는 부축(副軸)을 두어 용화전, 원통보

26) 현재 남아있는 팔상전(八相殿)과 대웅보전(大雄寶殿)의 기반부는 고려전기에서 중기 사이의 유구로 조사되었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오층목탑(팔상전)이 중건되었고 용화전이 건립되어 내부에 미륵장육존상이 조성되었으며 대웅보전도 창건되었던 듯하다. (문화재관리국, 법주사팔상전수리공사보고서, 국립문화재연구소, 1998. p.60)

27) ‘光明’은 비로자나불에, ‘彌智’는 미륵, 혹은 미타에, ‘紫霞’는 석가여래와 관련된 이름이다.

28) 이러한 명칭의 연원이 언제부터인지는 확정할 수 없으나, 진표가 속리산으로 와서 밝은 빛을 보고 산봉우리에 올라 비로자나불을 친견하였으며, 그 봉우리를 비로봉으로 이름하였다는 전설이 전하는 것을 보면 사찰 조영 과정과의 관련성을 추정할 수 있다.

전을 두는 구성을 취하였다. 김봉렬은 수정, 관음의 두 봉우리 사이에 놓인 대지의 성격과 여기에 미륵신앙과 화엄신앙의 결합이라는 교리적 의도가 작용하여 직교축이 형성되고 있다고 피력하고 있다.²⁹⁾ 이제 그 교리적 의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가람의 배치에 작용하였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2) 불전 배치의 해석

고려 중기 이전에 형성되어 있던 법주사의 기본적인 골격은 오늘의 모습과 사뭇 달랐다. 훨씬 후대의 기록이지만, 사적기(俗離山法住寺事蹟記)에 전하는 주요 전각들의 명칭과 규모를 보아 그 대강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대웅대광명전(大雄大光明殿) 2층38칸, 산호보광명전(珊瑚寶光明殿, 龍華殿이라고도 함) 2층35칸, 팔상오층전(八相五層殿) 36칸, 극락전(極樂殿) 6칸, 원통전(圓通殿) 6칸 등이 사내(寺內)에 있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³⁰⁾ 이 전각들의 구체적인 배치 형태를 알게 해주는 두 개의 그림이 전하는데, 18세기의 법주사도와 1920년에 그려진 것으로 보이는 홍영의 법주사도가 그것이다.³¹⁾ 이 자료들로 추정하면, 현재와는 달리 20세기 초까지는 지금의 미륵불이 있는 곳에서 약간 북쪽으로 용화전(龍華殿)이 있었고 팔상전(八相殿)과 대웅보전(大雄寶殿)을 잇는 축 상에 극락전(極樂殿)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³²⁾ 자료들을 근거로 재작성한 도면(그림6)을 보자.³³⁾ 금강문, 천왕문을 통과하여 팔상전에 이르면, 진입 축과 직교하여 용화전과 석등, 석련지를 잇는 축이 분기(分岐)되고 있다. 팔상전에서 나아가 극락전지(極樂殿址)에 이르면 다시 극락전(지)-원통전-약사전을 잇는 축을 만나게 된다. 원통전은 관음을 봉안한 전각으로서, 극락전과 원통전은 모두 미타정도 신앙을 반영하는 전각들이다. 극락전 동쪽의 약사전에는 약사불이 봉안되어 있어 동방약사유리광세계를 의미한다. 법주사(法住寺)의 대웅보전에는 이름과는 달리 중앙에 비로자나불이 모셔져 있

으므로 연화장세계를 뜻하는 대적광전(大寂光殿)이라 부르는 것이 옳다.³⁴⁾ 한편 법주사에서 가장 강력한 수직적 중심을 형성하는 팔상전에는 석가의 일대기를 그린 팔상도(八相圖)가 봉안되어 있으므로 이 전각은 석가모니의 사바세계 정토를 의미한다. 결국 법주사는 석가모니, 미륵, 아미타불, 약사불과 비로자나불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서 신앙되었던 각각의 부처와 그 불국토가 한자리에 모인 것으로, 속리산의 산명(山名)에서 확인한 내용이 전각들의 배치에서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목할 것은 각 불전의 배열 방식으로, 법주사의 배치 개념에 관련된 특정한 교리체계를 찾아 볼 수 있다.

법주사를 창건한 진표와 영심의 사상은 미륵과 관련되므로, 초창기 법주사는 수정봉-용화전-석물군(석련지, 석등, 가섭존자상)의 축으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³⁵⁾ 이후 고려에 접어들면서 법주사에 화엄학이 수용되었으며 중창을 거치며 가람의 배치는 일신된다. 팔상전에서 극락전, 대웅보전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강력한 주축이 형성되는 것이다.

미륵, 화엄 신앙의 전개를 따르며 신라에서 고려로 이어진 왕생사상(往生思想)은 법주사의 배치를 해석할 유력한 열쇠가 된다. 신라 이래 미륵정도와 미타정도는 모두 왕생처(往生處)로서 회구되어졌다. 원효 역시 그의 저술 미륵상생경종요(彌勒上生經宗要)와 유심안락도(遊心安樂道)에서 각각 도솔천 왕생과 극락왕생을 해설하고 있으며,³⁶⁾ 해동 화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지엄도 '서방'과 '미륵처'를 두 가지 왕생처로 언급하고 있다.³⁷⁾

34) 문화재관리국, 앞의 책. pp.69-70. 화엄사 대웅전, 개심사 대웅전 등도 봉안하는 부처와 전각명이 일치하지 않는다. 조선 후기에 본전을 대웅전으로 통칭하던 일반의 관습에 따른 것이다.

35) 김봉렬 외, 앞의 책. p.44

36) 원효의 입장은 미타정도의 우월함에 기울고 있으나, 문무왕대에 활동한 고승 경홍(憬興)은 원효에 반대하여 미륵정도 왕생을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논쟁에는 중국의 승려들도 가세한다. 7세기 말의 당승 회감(懷感)은 그의 석정토군의론(釋淨土群疑論)에서, '도솔천과 서방왕생을 소망하는 것 모두 각자의 성품에 의한 것으로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부처의 뜻이 아니다'라고 정리하고 있다. (안계현, 韓國佛敎思想史研究, 東國大學校 出版部, 1983. pp.74-76)

37) 지엄(智嚴)은 '왕생(往生)을 설하는 뜻은 다름 아니라 사바세계(娑婆世界)의 중하유근(中下濡根)이 퇴전(退轉)하기 쉬우므

29) 김봉렬 외, 법주사, 대원사, 1994. p.37

30) 문화재관리국, 앞의 책. p.63

31) 김봉렬 외, 앞의 책. pp.46-47

32) 조선고적도보의 법주사 사진에서도 팔상전과 대웅보전의 사이에 극락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33) 김경표 실측도면과 18세기 도면, 홍영의 법주사도를 참조하였다. 현재 석물의 위치는 바뀌어져 있다.

7세기 말, 중국과 신라를 풍미한 왕생처 논쟁은 고려의 혜덕왕사와 도생승통에게 이어져 범주사의 배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고려 전기, 범주사를 새로이 중창한 것으로 추정되는 도생승통(道生僧統)은³⁸⁾ 의상 이래의 화엄학과 원효의 계보에 관련된다. 그의 사상은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으나, 외숙이자 스승인 혜덕왕사(慧德王師)로부터 법을 이은 것으로 확인된다. 혜덕은 법상종(法相宗)에 속하는 승려로 원효로부터 전해진 맥을 잇고 있으며, 당의 화엄승 혜진(慧珍)과도 교분을 나누었던 바, 화엄에도 조예가 깊었던 것으로 보인다.³⁹⁾ 도생은 또한 화엄을 중심에 두고 있던 대각국사 의천의 동생이기도 하니, 원효와 의상을 거치며 이어진 정도 왕생사상은 그에게도 필경 친숙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혜덕과 도생에 의해 중창을 이룬 금산사 역시 기존의 미륵전에 더하여 대적광전이 부가되고 있으므로, 이들의 사찰 조영 개념에 화엄(華嚴)적인 왕생사상이 깊게 수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시 범주사의 불전 배치를 통하여 이를 확인하여 보자. 산문으로부터 진입하는 참례자(參禮者)는 천왕문을 지나 팔상전에 도달한다. 팔상전이 이처럼 중심축 상의 전면에 등장하는 것은 이례적인

로 이를 이끌기 위한 것으로, 왕생처(往生處)는 서방(西方)과 미륵처(彌勒處)의 두 곳이 있으며, 서방정도는 번뇌를 끊고자 하는 자를 위한 것이고, 도솔천은 그렇지 않은 자를 위한 것이다⁴⁰⁾라고 하여 극락울 우위에 두어 설명하고 있다. 智嚴集 孔目章 권4 壽命品內明往生義. (고익진, 앞의 책, pp.306-307에서 재인용)

38) 범주사에 주석한 고려중기 이전의 승려 중에서 사찰의 중건주가 될 만한 이로는 도생승통(道生僧統)이 가장 유력하다. 도생은 문종(文宗)의 아들로, 금산사의 일대 중창을 이룬 혜덕왕사의 제자이기도 하다. 스승이 죽자 금산사의 주지를 겸하여 그 중창에 관여하기도 하였다. 어머니인 문종의 비 인예태후(仁睿順德太后)가 적극적인 불교의 후원자였으며 문종 역시 보살계를 수계하고 홍왕사를 짓는 등 호불 군주였던 바 그 아들인 도생이 주석하던 범주사에 왕실의 막대한 지원이 있었음을 추정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 동국통감의 기록은 그가 거만금(鉅萬金)의 재산을 모아 사람들에게 후히 베풀었다고 전하고 있어(東國通鑑 高麗紀 睿宗 文孝王 壬辰年 1112), 그의 시대에 범주사 중창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매우 농후하다.

39) 贈諡慧德王師眞應之塔碑銘(원문은 權相老, 韓國寺刹事典上, 이화문화출판사, 1994. p.264에 전한다)은 '槃于曉法師 導之于前'이라 하여 혜덕의 사상이 원효로부터 전해진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또한 도대한 당의 화엄승 혜진과 교법을 나누는 사실과, 의천을 화엄의 우두머리로 부르고 있는 것도 주목된다(僧統大覺國師眞華嚴之宗匠也). 혜덕이 화엄학에 충분한 식견을 가졌음을 짐작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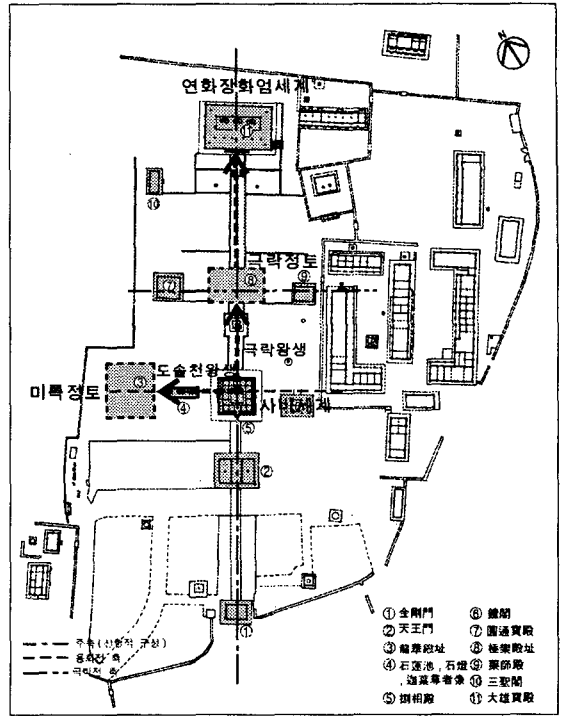


그림 6. 범주사 배치 개념도

구성이다. 이 거대한 목탑은 여기가 범주사 가람 구성에 있어 중요한 결절(結節)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앞서 살핀 대로 사바세계를 뜻하는 팔상전에서 왕생처는 두 방향으로 나뉜다. 하나는 미륵신앙에 의한 것으로, 팔상전에서 용화전으로 이어지는 축은 사바세계에서 미륵이 상주하는 도솔천(兜率天, 미륵정도)으로의 왕생(往生)을 의미한다. 이에 직교하여 주축을 따라 팔상전에서 극락전으로 나아가는 과정은 사바세계에서 극락정도에 이르는 왕생을 뜻한다.⁴⁰⁾ 즉 팔상전의 사바세계에서 각각의 참례자는 자신의 근기와 성품에 따라 용화전을 향하는 '도솔천' 왕생과 극락전으로 진행되는 '서방정도' 왕생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주축은 극락전을 지나 계속 이어져 비로자나불이 모셔진 현재의 대웅보전이 상징하는 연화장세계에 이른다. 극락세계와 연화장세계의 상관관계에 대해 화엄경은 다음과 같이 일러준다.

사바세계(娑婆世界)의 석가모니불찰로부터 안락세계(安樂世界) 아미타불찰에 이르고, 그로부터 다시 백만아승지세계(百萬阿僧祇世界)를 차례로 거쳐 최후에 승련화세계(勝蓮華世界) 현수불찰(賢首佛刹)에 이른다.

40) 팔상전에서 대웅보전으로 이어지는 축이 관음불을 향하고 있음은 의상 이래의 화엄종에 면면히 이어져 온 정도 관음신앙과의 연관성을 추정할 수 있게 한다.

<60화엄 제26 수명품(壽命品)>41)

사바세계로부터 극락세계에 이른 뒤 더 나아가 연화장세계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국토관은 우리나라에서도 공유되었을 것이나, 해동화엄의 초조(初祖) 의상에게서는 연화장세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찾을 수 없다. 그의 스승인 지엄의 인식을 잊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42) 지엄의 저술을 살펴보자.

서방(극락정토)에 생(生, 왕생)하여 불토를 얻게 하는 것으로써 대종(大宗)을 삼는다. 그 이후는 전전증승(展轉增勝)하여 무변불토(無邊佛土)에 생하고 보현계(普賢界)에 이르러 저 연화장세계해(蓮華藏世界海)에 다시 들어가 기화(起化)의 용(用)을 이루나니... (하략)

<智嚴集 孔目章>43)

서방 정토에서 출발하여 연화장세계로 들어간다는 설명이다. 또한 그는 입적(入寂) 시에, '이제 잠시 정방(淨方, 극락)에 갔다가 뒤에 연화장세계(蓮華藏世界)에 놀리니 너희들도 나를 따라 뜻을 함께 하라'고 이르고 있다.44) 수명품(壽命品)에서 그려진 대로, 사바세계에서 왕생하면 극락에 이르고 이어 마침내 연화장세계에 도달한다는 지엄의 왕생사상은 의상에 의해 우리나라의 교학 체계에 수용되었다.45)

교리에서 설명하고 있는 극락정토와 연화장세계의 선후관계는 중심축 상에 놓이는 극락전과 대응보전의 전후 배치로 구현되었다. 참례자가 팔상전에서 극락전을 거쳐 대응보전에 이르는 길은 사바세계에서 극락정토로 왕생한 이후 다시 비로자나불의 연화장세계에 도달하는 불국토의 순로(順路)에 완전히 일치한다.

법주사의 배치에는 팔상전에서 용화전으로 향하

는 도솔천 왕생과 팔상전에서 극락전으로 나아가는 극락왕생, 그리고 다시 극락전에서 대응보전에 이르는 화엄적 왕생사상이 종합되어 있다. 원효, 의상 이래의 왕생사상에 따른 각 불국토들의 상호관계는 직교축의 결합을 통하여 법주사의 불전 배치 개념에 명료하게 실현된 것이다.46)

2.3 의상계(義湘系) 정토관의 실현 : 부석사(浮石寺)

(1) 조영의 배경과 입지 지형 분석

신라 문무왕 16년(676년) 의상이 창건하였다. 장전(田莊)과 노복(奴僕)을 시여(施與)하겠다는 왕의 호의를 거절하였고, 문무왕(文武王)이 경성성곽(京城城郭)을 쌓고자 할 때에도 백성의 고통을 감안하여 말렸던 의상의 행적으로 보아,47) 초창기의 부석사는 작은 암자 수준을 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대가람의 기틀이 형성된 시기를 파악하는 것이 요구된다. 가람 배치의 골격을 이루는 대석단이나 무량수전 앞 석등의 조성 시기는 신라 하대의 것으로 보인다.48) 경덕왕(742-765)기 이후 의상의 문도 중 신림(神琳)과 표훈(表訓)을 비롯하여 많은 제자들이 활약하며 왕실의 재정적 후원을 받고 있는 정황으로 보아49)

46) 역시 진표가 창건한 것으로 알려진 금산사의 배치에서도 이러한 왕생사상에 의한 조영 개념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금산사의 배치에 있어, 남향한 대적광전과 서향한 미륵전이 두 개의 중심을 이루면서 직교하고 있는 구성은 혜덕왕사 당시에 결정된 것으로 추정한다.(김봉렬, 한국건축의 재발견1 시대를 담은 그릇, 이상건축, 1999. p.99) 도생송통 역시 금산사에 주석하여 중창에 개입하였으니 두 절 사이의 유사성은 더욱 강화된다. 사중에 보관하고 있는 금산사지에 의하면, 본래 대적광전이 중건되기 이전에는 극락전, 약사전이 각각 존재하여 따로 봉안되었다고 한다.(한국불교연구원, 금산사, 일지사, 1977. p.71) 이 일곽에 있었다고 하는 극락전의 위치는 현재의 대장전 자리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지금의 대장전은 대적광전의 동측면으로부터 이진된 것이니 이 자리에는 원래 상당한 규모의 건물이 놓여 있었을 것이다. 또한 그 좌향이 서좌동향(西坐東向)이므로 극락전지(極樂殿址)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러한 추정에 근거하면, 현재의 금산사 중심 마당으로부터 미륵전과 극락전(지)으로 분기되고 그 뒤로 대적광전에 이르는 배치 구성은 법주사의 조영 개념과 상통하는 바가 크다.

47) 고익진, 앞의 책. p.279, p.367

48) 한국불교문화연구원, 부석사, 일지사, 1976. p.60. 김보현 외, 부석사, 대원사, 1995. p.20

49) 경덕왕 기에 부석사 계열의 화엄승들은 대거 약진을 보인다. 神琳은 중국 유학에서 돌아와 부석사에 거하면서 法融, 眞秀, 順應, 質應, 崇業師, 大雲法師 등 신라 하대에 활약하는 많은 화엄대덕을 길러내고 있다.(김복순, 신라 화엄학의 성장과

41) 華嚴經(六十卷本) 권29, 大正9, 589.c, 고익진, 앞의 책, p.306에서 재인용

42) 고익진, 앞의 책. p.309

43) 智嚴集 孔目章 권4 壽命品內明往生義. 고익진, 앞의 책, p.308

44) 華嚴經傳記 권3 智嚴傳, 大正 51.163.c, 고익진, 앞의 책, p.308에서 재인용. 의상은 스승 지엄이 입적한 이후 곧 귀국길에 오른다. 지엄의 이 같은 가르침은 의상에게 각인되었을 것이다.

45) 지엄은 의상의 시대 이후에도 계속 존승을 받았다. 신라말 현준(賢俊)과 결신(決信)이 주축이 되어 보은사회(현강왕 10년. 884)를 열고자 하였는데, 그 취지가 지엄과 화엄법사(의상 등)들의 법은(法恩)을 값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崔致遠, 故修南山嚴和尚報恩社會顯文. 고익진, 앞의 책. p.3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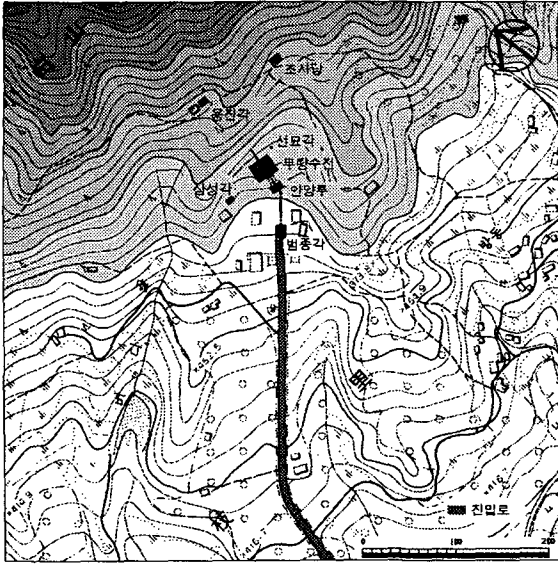


그림 7. 부석사 지형도

늦어도 신라 하대 이전에 부석사의 일대 중창이 이루어져 현재의 모습과 같은 배치를 이룬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송고승전(宋高僧傳)의 의상전(義湘傳)에 의하면 의상은 사찰을 창건하기 위하여 '고구려의 먼지나 백제의 바람이 미치지 못하고 말이나 소도 접근할 수 없는' 곳을 찾았다고 전한다.⁵⁰⁾ 실제로 그러하지만 지형도를 확인하여보면 과연 부석사는 깊은 산 중에 위치하여, 입지를 찾아내기 위해 애쓴 의상의 고심을 확인할 수 있다. 남서쪽으로 떨어지는 가파른 경사지에 자리하여 주어진 지형에 따라 진입축은 응당 북동향이 되었으며, 산문과 범종각은 이 축에 따라 배치되었다.

(2) 불전 배치의 해석

부석사의 배치는 안양루의 대석단을 경계로 상단과 하단으로 명확하게 구분된다. 안양루와 무량수전이 위치하는 상단은 아래의 범종각 등이 놓인 지반과는 10여 미터 정도의 표고차를 보인다. 두 영역의 배치 축도 달라서, 상단에 놓이는 무량수전, 조사당과 명부전 및 응향각 등은 정남향에 가까운 좌향으로, 산문에서 범종각에 이르는 남서측과는 30도 정도 굴절되어 있다.

부석사에는 무량수전 외에 사라진 불전이 하나

더 있어, 하단 영역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1849년의 기록인 순흥읍지(順興邑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전한다.

(안양)門 앞에는 범당이 있으며 범당의 좌측은 선당, 우측은 승당이라 한다. 그 앞으로 종각(범종각)이 있는데 역시 넓게 트여 있다.⁵¹⁾

현재 범종각 뒤편에는 패불대와 석등의 흔적이 남아있어 이 자리가 순흥읍지에 기록된 불전(범당)의 위치로 추정된다. 겸재(謙齋)의 교남명승첩(嶠南名勝帖)에 수록된 부석사도(浮石寺圖)에 보면 범종각과 안양루의 사이에 이 전각의 위치가 확인된다.⁵²⁾ 불전의 명칭과 주존불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⁵³⁾

삼국유사에는 이 불전의 성격에 관한 의문을 풀어줄 두 개의 기사가 전한다.

경덕왕이 왕위에 올라 이 사실(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이 각각 미륵과 미타로 성불한 것)을 듣고 정유년(757)에 사자를 보내어 큰 절을 세우고 절 이름을 백월산 남사(白月山南寺)라 했다. 절이 완성되자 미륵존상을 만들어 금당에 모시고, 액호(額號)를 현신성도미륵지전(現身成道彌勒之殿)이라 했으며, 아미타불상을 만들어 강당에 모시고 그 액호를 현신성도 무량수전(現身成道無量壽殿)이라 했다.⁵⁴⁾

감산사(甘山寺)는 서울(경주)에서 동남쪽 20리가량 되는 곳에 있다. 금당에는 미륵존상(彌勒尊像)이 모셔져 있는데, 그 화광(火光, 광배)의 기록에 '경덕왕 18년(719)에 중아찬의 직위에 있던 김지성(金志誠)이 돌아가신 부모를 위하여 미타석상(彌陀石像) 1구를 조성하였다'하며, 또한 아미타불(阿彌陀佛)의 화광 후기에는 '미타석상 1구를 만들어 돌아가신 아버지를 받들어 위로했다'고 기록되어 있다.⁵⁵⁾

위의 기록에 보이는 남백월사(南白月寺)는 경남 창원 백혈산 남쪽에 있었으나 폐사된 것으로 전한다. 경주 인근에 있었던 감산사(甘山寺) 역시 금당에 미륵불, 강당에는 아미타불을 봉안한 것으로

발전, 한국불교사의 재조명 pp.110-112) 또한 表訓은 경덕왕에게 후사(惠恭王)를 얻게 해주는 등 왕실과 밀착한 활동을 보인다(三國遺事 권2 紀異 景德王 忠諫師 表訓大德 條).

50) 한국불교문화연구원, 앞의 책. p.17

51) 門前有法堂 堂左爲禪堂右爲僧堂 前有鐘閣 亦寬敞閣下. 문 화재관리국, 영주부석사보수정화준공보고서, 문화재관리국, 1980. p.106

52) 줄고, 진경산수화에서 보이는 사찰건축, 건축문화, 9709. p.222

53) 부석사가 화엄종찰임에 비추어 비로자나불을 모시는 대적광전일 것으로 추정하는 견해가 있다. (배병선 외, 부석사, 대원사, 1995. p.65. 김봉렬, 한국건축의 재발견3 이 땅에 새겨진 정신, 이상건축, 1999. p.70)

54) 三國遺事 권3 南白月二聖

55) 三國遺事 권3, 南月山

보인다.⁵⁶⁾ 한 사찰에 미륵과 미타를 함께 모시던 신라 중대의 경향은 뒤이어 중창된 부석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당과 강당에 미륵과 미타를 각각 배치하는 방식은 부석사와 같은 산간 지형에서는 석단의 전후에 따로 불전을 두어 두 부처를 봉안하는 것으로 변용되었다. 즉 대석단의 상단에 아미타불을 모신 무량수전이 있으니 하단의 전각은 미륵불을 봉안한 미륵전(혹은 용화전)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백월사와 감산사가 미륵을 본전에 모시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정도적 화엄관을 유지하였던 부석사는 위계가 더욱 높은 상단의 무량수전에 아미타불을 모시게 된 것이다.

이러한 추정은 서보전(무량수전)단확중수기(西寶殿丹腹重修記)의 기록으로도 보강된다. 중수기는 태백산의 산줄기가 고리처럼 이어져 연화(봉)에 이르고 있다고 쓴 뒤, 이어 미타정토(無量)와 미륵정토(兜率天)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⁵⁷⁾

이상과 같이 미륵전으로 추정되는 하단의 불전지 우측으로 축이 굴절되어 안양루와 무량수전으로 연장된다. 안양(安養)이라는 명칭은 역시 극락정토의 입구임을 상징한다. 부석사의 본전이라 할 무량수전 안에는 아미타불이 봉안되어 있으며 협시보살을 두지 않았다. 불전 앞마당에도 석등이 있을 뿐 탑은 놓여 있지 않다. 앞서 설명한 불국사 극락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의상의 투철한 정도관을 반영한 것이다.

부석사의 가람 배치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축의 굴절이다. 범종각-법당지로 이어지는 진입축은 안양루에 이르면 정북방향으로 꺾여 무량수전으로 전개된다. 안양루를 기점으로 하단과 상단의 불전이 각각 별도의 좌향(坐向)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축의 굴절은 이원교에 의해 지리체계와 연관되어 해석되었다. 안양루 밑에 있던 불전을 중심으로 하는 하단의 구성 축은 멀리 태백산맥의 연봉(連峰)인 도솔봉을 향하고 있으며, 무량수전을 중심으로 하는 상단의 축은 봉황산이 서쪽 능선으로 내려 뺐은 안산을 향하고 있다. 부석사를 두르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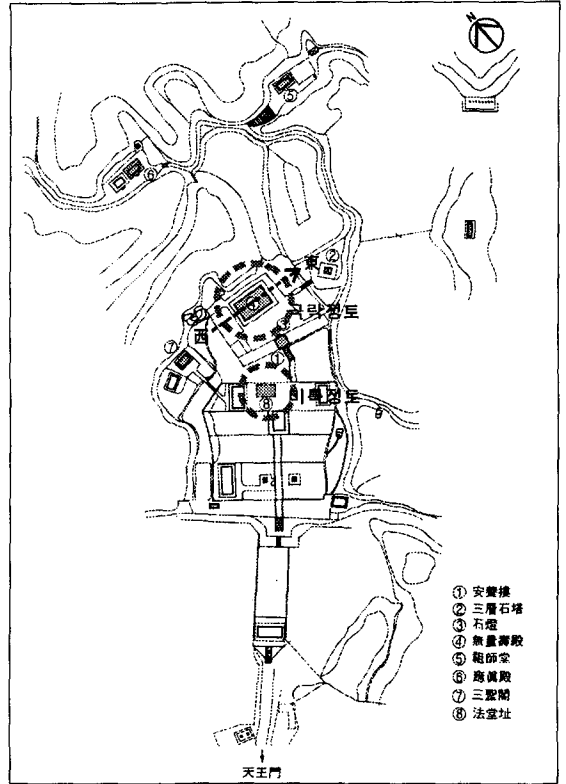


그림 8. 부석사 배치 개념도

는 태백산을 축령으로 기준을 삼아 나누면, 봉황산으로 이어지는 동쪽의 연화봉과 비로봉은 그 명칭에 있어 비로자나불의 연화장세계를, 도솔봉은 미륵이 주처하는 도솔천(兜率天)을 상징한다. 즉, 하단의 구성축은 도솔천을, 상단의 구성축은 비로, 연화봉과 연결된 봉황산의 내맥(來脈)인 안산을 바라보아 연화장세계를 지향하는 것이다.⁵⁸⁾ 앞서 하단의 불전을 미륵전으로 추정한 것은 지리체계에 근거한 이러한 해석과도 일치한다.

부석사가 자리한 태백산이 곧 연화장 세계임을 시사하는 내용을 일연(一然)의 시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어려움 무릅쓰고 바다 건너가 지상사에 이르러 도를 만나다.

찬란한 연화장은 내 나라거니 그 어이 중남, 태백 한 봄 아니라.

<의상찬(義湘讚), 일연(一然)>⁵⁹⁾

56) 문명대, 한국의 정도미술, 한국정토사상연구, 동국대학교출판부, 1985. p.340

57) 刹刹藝藝磊磊上透浹周流而環太寸弁舉石若莫非鉢中蓮花最稱點頭者也 至於衆生行○不然而況無量者道爲易數者歟也如兜率天花雨以糜鹿而亦露須彌山劫火雖寶玉。(문화재관리국, 앞의 책. p.122에서 재인용)

58) 이원교, 전통건축의 배치에 대한 지리체계적 해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pp.129-130

59) 披襟跨海冒烟塵 至相門開接瑞珍 采采雜花我故國 終南太伯一般春。(이원섭 편저, 高麗高僧漢詩選, 현대불교신서1, 동국대학교

위의 시 2구의 지상문은 지엄의 문하를 가리킨다. 3구의 잡화(雜花)는 화엄(華嚴)과 같은 뜻이니,⁶⁰⁾ 온갖 잡화가 아고국(我故國)이라는 표현은 연화장세계가 바로 이 나라라는 것이다. 종남은 지엄이 주석한 지상사가 있던 곳이고 태백은 의상의 부석사가 있는 곳이다. 4구에서 이 두 산이 모두 한 봄이라 하고 있는 것은, 산에 봄이 오면 웅당 잡화가 만발하는 것이니 두 산이 모두 연화장세계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 된다. 지리체계와 관련하여 무량수전이 안대(案帶)로 삼은 태백산 줄기가 곧 연화장 화엄세계에 다름아니라는 인식이 의상으로부터 일연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또한 주목할 것은 무량수전(無量壽殿) 내부에 서측으로 치우쳐 불단이 놓여 있으며 이 위에 안치된 아미타불(阿彌陀佛)은 동쪽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타 불전에서 예를 찾기 힘든 이러한 구성에는 의상의 독특한 정토관이 반영되어 있다.⁶¹⁾ ‘백화도장발원문(白花道場發願文)’에서 ‘원컨대 제자 의상(義湘)은 생생세세(生生世世)에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님을 본사(本師)로 모시되, 마치 관세음보살이 아미타불을 협시(挾侍)하듯이 사신수신(捨身受身)하면서 차계타방(此界他方)에 수소생처(隨所生處)하여 그림자가 형상을 따르듯이 하리라’고 하고 있다.⁶²⁾ 정토신앙에 정진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기성 쾌선(箕城 快善, 1693-1764)의 기록은 의상의 정토관과 방위(方位) 인식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명료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의상은 오로지 안양(극락정토)을 구하여 평생을 서쪽을 등지고 앉지 아니하였다. 의상이 하루는 상을 만들어⁶³⁾ 등에 지고 나가는 제자를 불러 일렀다. ‘나는 서쪽을 등지지 아니하였고 상 역시 그리하였다. 만일 상을

역경원, 1978, pp.39-41)

60) 화엄(華嚴)은 ‘잡화엄식(雜花嚴飾)’으로 풀이된다.

61) 선행 연구에서도 아미타불의 좌향에 대하여 언급하여 왔으나 그에 반영된 의상의 건축적 사고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못하였다. 이 장에서는 무량수전 건축 계획에 반영된 의상의 교리적 개념을 밝히는데 주목하였다.

62) 이지관, 저서를 통해 본 조선조의 정토사상, 한국정토사상 연구, 동국대학교출판부, 1985, pp.192-193

63) 여기에서 제자는 가지고 다닐만한 크기의 목조불감(木彫佛龕)을 만들어 등에 휴대한 것으로 보인다.

등지게 하여도 상이 스스로 몸을 돌려 서향할 것이니, 서쪽을 향하여 마침내 서산(서방정토)에 이를지니라.’ <請擇法報恩文別明淨土門>⁶⁴⁾

의상은 평생을 서쪽을 등지고 앉지 않았으며 휴대한 불감(佛龕)까지도 서향하여 지닐 정도로 그 방위적 개념이 지극했다는 것이다. 극락이 사바세계로부터 서쪽에 있다고 굳게 믿고, 그 정토로의 왕생을 갈구했던 의상의 치열한 자세를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방정토를 추구한 그의 엄격한 태도는 무량수전의 건축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방위와 관련된 의상의 지론을 따르자면, 참례자가 불전에 들어 예불하는 경우 반드시 서쪽을 향해 앉아야하므로 전각 안의 주존(主尊)인 아미타불은 서좌동향(西座東向)으로 안치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만약 무량수전을 하단 전각들과 동일한 축을 잡아 배치하여 지금과 같은 불단 구성을 택한다면 불전 안에서 참례자는 북서향(北西向)을 취하게 된다.⁶⁵⁾ 평생을 서쪽을 등지고 앉지 않을 정도로 서방에 천착했던 의상의 지리관으로는 용납하기 힘든 일이었을 것이다. 상단 전각들의 축이 굴절된 것은 참례자의 좌향을 정서향(正西向)으로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서방의 극락정토에 존재하는 아미타불을 사바세계에서 바라보고 예불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좌향의 배치가 가장 명료한 구성이 된다. 앞서(2.1장) 살펴본 대로 불국사에서 극락전이 대웅전에 대하여 정확히 서쪽에 위치하는 것도 이러한 인식이 적용되어 병렬형 사찰의 가람배치에 수용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정토관에 따른 불전 배치는 무량수전의 평면 구성에도 반영되었다. 불전의 출입은 독특하게도 건물 정면 퇴칸으로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불전은 측면의 협문(夾門)을 통해 진입하는 것이 통례이다. 주존(主尊)을 바로 마주보며 들어서는 것을 꺼렸던 전통적인 인식에 따른 것으로, 일반적으로 정면을 향해 앉아 있는 불상의 옆을 바라보며 건물 측면으로 들어서게 된다. 그러나 부석사 무량수전에서는 아미타불이 건물의 측면을 향하여 앉

64) 義湘法師 專求安養 平生坐不背西 出遊弟子 造像負行 師召之曰 我不背西 像亦應爾 令像背西 而坐像自回身 向西而坐 又終至西山. <請擇法報恩文別明淨土門>. (韓國佛教全書 권9, pp.649-650)

65) 불단을 일반적인 경우처럼 건물 전면을 향해 놓는다면 참례자는 북동향으로 앉게 된다. 이는 의상의 관점에 더욱 위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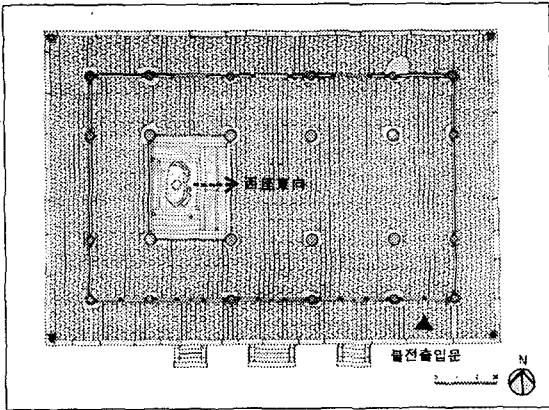


그림 9. 무량수전 평면도

아 있으니 참례자는 응당 건물의 퇴칸 정면에서 진입하도록 만든 것이다. 무량수전 앞의 석등 위치가 약간 서쪽으로 비껴 있는 것 또한 안양루를 통과하여 올라온 참례자를 그 진행방향에서 보아 오른쪽으로 유도하여 이 출입문에 까지 자연스럽게 다다르도록 배려한 까닭이다.

이와 같이 부석사의 독특한 배치 개념은 태백산 연화장 세계를 지향하는 화엄적 지리인식과 서방극락을 향한 투철한 정도관의 융합이다. 의상의 정도관과 화엄사상은 무량수전에서 좌향과 불단 배치를 통하여 절묘하게 결합되었다. 의상이 부석사의 창건지를 찾아 산천을 편력한 까닭 역시 지세와 좌향, 그리고 방위까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땅을 찾기 위함이었다고 볼 수 있다. 지형에 맞추어 형성된 진입축이 도솔봉을 향하며, 상단의 구성축이 연화장세계와 서방정토를 지향하여 의상의 조영 사상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이 땅은 의상에게 부석사 창건의 적지(適地)로 여겨졌음에 틀림없다. 그러하였기에 창건 설화에서 보듯이 '권종이부(權宗異部)'의 반대를 무릅쓰고 선묘룡(善妙龍)까지 동원하며 사찰을 창건하고 있는 것이다.

몇 가지의 유물은 무량수전이 지닌 불국토의 상징을 보장한다. 불전 바닥에 깔렸던 녹유전(錄釉塼, 14 x 14cm, 두께 7 cm)은 이곳이 극락정토임을 표현한다.⁶⁶⁾ 관무량수경에 보이는 '극락의 땅은 유리로 덮여있다'는 설정에 따르고 있는 것이다. 참고할 유물이 하나 더 존재한다. 대승사에 현존하고 있는 목각탱(木刻幀)이 그것으로, 철종13년(1862) 당시 폐찰되어 있던 부석사에서 옮겨온 것이다.⁶⁷⁾ 아마타탱인 것으로 보아 부석사 무량수전

에 봉안되었던 것이다. 주목할 점은 하단에 큰 연꽃을 조각하고 줄기가 제존상(諸尊像)의 사이사이에 뻗치게 조각되어 연화장세계를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듯 무량수전은 서방극락 정도와 함께 연화장세계를 아우르고 있는 것이다.

결국 부석사는 하단의 법당(미륵전)과 상단의 무량수전을 중첩시키는 구성을 통하여 도솔천, 서방정토와 연화장세계라는 세 개의 불국토를 결합시키고 있으며, 여기에 의상의 화엄사상과 정도관에 따른 건축 원리가 정연하게 구현되었다. 의상이 지닌 서방정토에 대한 투철한 지향은 무량수전축의 굴절과 서좌동향의 불단(佛壇) 배치로 실현되었고, 이에 따라 출입문과 석등의 위치에 대한 미세한 조정까지 가해졌다. 또한 보처불과 영탑을 두지 않는 구성으로 '무생멸(無生滅)'의 미타정토를 실현한 것이다.

3. 맺음말

본 연구는 다불전 사찰을 불전 배치 형태에 따라 병렬형, 교축형, 중첩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서 교리적 요인이 상대적으로 강력하게 반영된 불국사, 법주사, 부석사의 사례를 살펴 사찰 조영 주체들이 지녔던 불교적 배치 개념의 일단을 추출해내고자 하였다.

불국사는 대웅전과 극락전의 동서 병렬배치를 통하여 사바세계와 극락의 위치관계를 명확히 반영하였으며, 각 계단의 상징을 통하여 극락정토를 갈망했던 통일기 신라 민중의 소망을 담아내었다. 법주사는 미타정토와 극락정토의 두 왕생처를 모두 구비함으로써 근기에 따른 왕생의 가능성을 최대화하였고, 화엄적 정도관을 수용하여, 극락세계에 이어 연화장 세계를 배치함으로써 한 차원 높은 정도 인식에 접근하였다. 부석사는 의상의 화엄적 지리 인식과 투철한 정도관이 사찰의 입지에서 서부터 불전의 배치, 평면의 구성에 이르기까지 정연하게 적용됨으로써 서방 극락정토를 향한 민중의 염원을 수용하였다.

이들 사찰의 조영 개념은 신라에서 고려로 법맥(法脈)을 이은 불가(佛家)의 건축 주체들이 지녔던 대승적(大乘的) 사상을 반영한다. 사찰을 불국토로

66) 한국불교문화연구원, 앞의 책, p.62

67) 大乘寺木刻幀關係文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민족문화대백과 6, 1991. p.417

변모시켜 당대의 민중에게 그들이 염원하는 이상 세계를 가시적으로 실현하고 정토왕생의 희망을 부여함으로써 중생을 구도하려는 의지가 이들 사찰 조영 원리의 요체(要諦)다.

<참고문헌>

1. 三國遺事.
2. 大方廣佛華嚴經.
3. 妙法蓮華經.
4. 坪井俊映, 淨土三部經概說, 운주사, 1992.
5. 權相老, 韓國寺刹事典(上), 이화문화출판사, 1994.
6. 佛敎文化研究院, 韓國淨土思想研究, 東國大學校 出版部, 1985.
7. 고익진, 한국고대불교사상사, 동국대학교, 1989.
8. 安啓賢, 韓國佛敎思想史研究, 東國大學校 出版部, 1983.
9. 불교신문사, 한국불교사의 재조명, 불교시대사, 1994.
10. 이원섭. 高麗高僧漢詩選, 현대불교신서1, 동국대학교 역경원. 1978.
11. 한국불교문화연구원, 부석사, 일지사, 1976.
12. 한국불교연구원, 불국사, 일지사, 1974.
13. 김동현 외, 불국사, 대원사, 1992.
14. 김봉렬 외, 법주사, 대원사, 법주사. 1994.
15. 김봉렬, 한국건축의 재발견1.3, 이상건축, 1999.
16. 이원교, 전통건축의 배치에 대한 지리체계적 해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17. 김봉렬, 조선시대 사찰건축의 전각구성과 배치 형식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18. 문화재관리국, 불국사 복원공사보고서, 1976.
19. 문화재관리국, 영주부석사보수정화준공보고서, 문화재관리국, 1980.
20. 문화재관리국, 법주사팔상전수리공사보고서, 국립문화재연구소, 1998.

A Study on the Philosophy of Temple Structure with Multi-Buddha's Pavilions based on Buddha's Land Conception

- Focusing on the Layout of Bulkooksa, Beobjusa and Buseoksa -

Yang, Sang-hyun

(Professor, The University of Soonchunhyang)

Abstract

Temple with Multi-Buddha's Pavilions is a temple consisting of more than 2 Buddha's Pavilions. Individual Buddha's Pavilions tend to form distinguished area, or to keep independent axis from other Buddha's Pavilions.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philosophy of layout of individual Buddha's Pavilions located in the Temple with Multi-Buddha's Pavilions. To investigate a relationship to layout of individual Buddha's Pavilions on the basis of Buddhism doctrine makes us to understand philosophies about temple layout which temple constructors had.

Bulkooksa, a temple having several pavilions placed in parallel, integrates diverse philosophies such as Vairocana Buddha-Ksetra from Vairocana Buddha's Pavilion, Sakyamuni Buddha-Ksetra from both Sakyamuni Buddha's Pavilion and two stupa, and Amitayus Buddha-Ksetra (*Sukhāvati*) from Amitayus Buddha-Ksetra Pavilion. Sakyamuni Buddha's Pavilion and Amitayus Buddha's Pavilion are placed east to west in parallel, and Vairocana Buddha's Pavilion is placed behind them.

Beobjusa, a temple having several pavilions placed cross axis, combines three axes such as the first, main axis linking *Kumkang Gate - Chunwang Gate - Palsang Pavilion - Amitayus Buddha's Pavilion - Sakyamuni Buddha's Pavilion*, the second axis linking *Palsang Pavilion - Maitreya Pavilion*, and the third axis linking *Amitayus Buddha's Pavilion - Avalokiteshvara Pavilion*. Relationship among each Buddha's land is clearly expressed by means of this cross axis layout of Buddha's Pavilions, reflecting a philosophy of rebirth in Nirvāna that *Wonhyo* and *Eusang* propagated.

Buseoksa, a temple having several pavilions placed the before and the behind, combines three Buddha's lands such as Maitreya Buddha-Ksetra, Amitayus Buddha-Ksetra and Vairocana Buddha-Ksetra, by means of arrangement of Maitreya Pavilion, *Anyang Pavilion* and Amitayus Buddha's Pavilion at bended axis, and east facing Amitayus Buddha.

By investigating the philosophy of Temple layout with Multi-Buddha's Pavilions in this study, Buddha's Land conception, for people, that ancient Korean temples have, is understood.

Keywords : Buddha's Pavilions, Temple, Buddha-Ksetra, Rebirth, Layout
